



천성산 계곡 물의 양을 측정하는 '유량민간조사단' 활동이 환경운동의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지음스님과 민간조사단의 만남(왼쪽 사진), 조사에 동참한 수녀님(오른쪽).

천성산 '유량민간조사단'의 활동...환경운동의 새 모습

“벌써 물이 줄고 있어요”

스님·수녀·교수·도롱뇽의친구들 매일 3곳서 수량 기록

지금 천성산에는 어른들이 쓰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피어 나고 있다. 지음 스님이 천성산 암자로 돌아간 직후 시작된 천성산 유량 민간조사단 활동은 수녀, 스님, 교수, 도롱뇽의 친구들이 함께 써 내려가는 동화다.

저마다의 일상에 바쁜 어른들이 순번을 정해 천성산에 오르고 대상, 안적, 가사암 세 계곡에 설치된 유량측정기의 눈금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을 한달반 짝 이어오고 있다.

세 계곡의 물이 모이는 지점에 시멘트로 설치된 유량측정기는 도롱뇽의 친구들이 시멘트를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직접 만든 것이다. 민간조사단원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때론 친구들과 유량조사를 함께 하면서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아 천성산 홈페이지(www.cheonsung.com)의 조사단 일지에 그녀의 소감과 함께 올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어도 이 조사는 계속될 것이다.

유량 민간조사단이 꾸러진 이유는 이렇다. 공동조사단 활동에서 유량조사가 의도적으로 제외되었고 고수철도공단에서 2004년부터 진행해왔던 보내온 유량조사기록이 강우량의 변화와 전혀 맞아 떨어지지 않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유량의 변화를 시민들이 매일 산을 오르는 수고를 해서라도 기록해야 하는 이유였다.

각각의 계곡에는 현재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유량조사의 결과가 적힌 기록판이 나무에 매달려 있고 매일 그곳을 오른 조사단이 그 기록판에 수치를 적고 있다. 터널공사로 인해 생기는 천성산의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나서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5월 9일에는 천성산 유량 민간조사단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유량 조사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음 스님은 “지금부터 천성산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유량조사”라며 “현재 터널 공사 건너편 아파트의 식수가 고갈되는 등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천성산의 물이 마르고 높이 마르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될까 우려된다”며 민간조사단의 활동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 양산 등의 조사단들도 “유량조사를 위해 산에 가면서 산이 주는 생명력에 새삼 놀라고 단 20분 빨리 가기 위해 이 곳을 망가뜨려야 하나 되게 된다”며 “유량조사를 제외시킨 것만 봐도 공평으로 물이 새지 않게 하겠다는 공단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증거이니 유량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음 스님은 “민간조사단은 투쟁으로 일관해왔던 환경운동에 사람의 온기를 더하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짜음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보다는 개발과 자연이 상충될 때 우리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빠르면 5월말 경 결론이 내려지게 될 도롱뇽 소승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음 스님은 현재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업에 한창 바쁘다. 또한 유량조사가 빠지는 정황과 공평 보안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정 등이 담긴 공동조사단 속기록을 토대로 한 연구 공원을 기획중이다. 5월 20일경 그동안 천성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운동에 참여해온 수녀들이 부산 남천동의 북카페에서 사진전을 열 예정이다.

글·사진/천성산=천미희 기자



대구봉축위, 대상사에 '대상'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는 5월 10일 대구 프린스호텔 갤럭시홀에서 결산평가회의를 갖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봉축위원회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가회의는 장엄경연대회 우수출품작에 대한 시상과 봉축행사에 공로가 큰 스님과 불자들에게 표창, 감사보고, 수지결산, 행사평가에 대한 토의로 이어졌다.

대구봉축위는 회의에서 연등축제 회향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지역시민들의 흥을 돋운 천태종 대상사에 대상, 한마음 선원과 진각중에 금상을 수여하는 등 모두 13개 단체에 대해 시상했다. 배지선 기자

영주장애인복지관 스쿠터 전달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훈)은 영주법우회의 추천을 통해 국제로터리 클럽3630지구에서 기증받은 전동스쿠터를 최근 재가 장애인 조모씨(지체1급)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동스쿠터를 기증받은 조씨는 지체장애인 중 특히 거동이 불편해 외출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조씨가 운전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시행운전을 하며 앞으로 외출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지선 기자

대구BBS, '꿈이 있는...' 개최

대구불교방송(사정 범조)은 개국 10주년을 맞아 5월 21일 오전 10시 대구 월드컵경기장 야외공연장에서 '2006 꿈이 있는 문예마당'을 개최한다.

파라미터 청소년협회 대구지부와 대한 불교어린이지도자연맹 대구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글짓기(산문·운문)와 그리기, 다과 사진촬영대회로 진행되며, 굴렁쇠 돌리기, 제기차기, 팽이놀이 등 다양한 우리 전통 전래민속놀이도 펼쳐질 예정이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수상자 발표는 5월 29일 대구불교방송 홈페이지(www.dgbbs.co.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앞산살림 위한 100일기도' 시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회장 고경순)이 5월 11일부터 상인동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천막농성장 앞 생명평화광장에서 앞산터널공사에 반대하는 '앞산살림을 위한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

달비골천막농성단,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의 대구시민환경단체들도 5월 11일부터 두 달간 앞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대구시민들의 이름으로 '앞산터널반대 대구시민 25만4천명 이어가기' 운동을 시작했다. 25만4천은 대구 시민 254만명의 10%에 해당하는 수치. 배지선 기자

경주 남산 흙길 달려요

28일 남산산길 마라톤 대회...외국인노동자도 참가예정

경주 남산 산길마라톤대회(대회장 지관·조계종 총무원장)가 5월 28일 오전 10시 경주 통일전 앞 광장에서 한국불교마라톤협회(회장 진오스님) 주최 주관으로 열린다. 지난해 문화유적 훼손 등의 이유로 일부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경주남산 흙길 코스를 달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시 경주남산을 관통하는 흙길 코스에서 열리게 돼 마라톤 마니아들의 기대가 크다. 하프코스(10km, 10km) 걷기 코스 등 3개 종목이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외국인노동자

100여명도 동참할 예정이다. 대회를 개최하는 한국불교마라톤협회장 진오스님은 “올해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대회개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많은 마라톤 마니아와 일반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외면할 수 없어 지속하게 됐다”며 건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스포츠를 통해 우리의 불교문화를 새롭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054)775-0408 배지선 기자

주민과 함께 춤추고 가훈 써주고...

부산 옹호복지관 장승축제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옹호복지관(관장 혜홍)이 5월 8일 제3회 옹호장승축제와 제11회 어르신 호 큰잔치를 개최해 지역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사진). 올해로 3회를 맞으며 지역주민제로 자리잡고 있는 옹호장승축제는 지역단체장과 옹호복지관 이용 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승제를 올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가족단위로 참여한 주민들은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캐리커처, 가훈써주기, 에니메이션 체험, 비누, 열쇠고리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제11회 어르신 호 큰잔치 행사에서는 제34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7명에게 공로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천미희 기자



옹호복지관장 혜홍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승이 마을 입구를 지키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듯이 옹호복지관이 마을의 복지와 안녕을 기원하며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옹호복지관은 이날 질순, 팔순, 구순을 맞은 독거어르신들 위한 장수잔치를 별도로 마련했는가하면, 옹호노천가페를 밤 12시까지 운영하며 복지관을 주민들을 위한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 개방했다.



봉화 청량사, 차와 빛과 소리의 만남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 청량다회는 5월 11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차와 빛과 소리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운산 스님의 대공연주, 박혜련씨의 가야금 병창, 신영희씨의 국악한마당, 청량다회의 차 나눔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차를 마신다는 것은 우주의 내가 하나되는 성스러운 시간이 아닐수 없다”며 “대수롭지 않은 일을 다반사(茶飯事) 하듯 평범속에 비범을 마음에 담아본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청량다회> 배지선 기자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 청량다회는 5월 11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차와 빛과 소리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운산 스님의 대공연주, 박혜련씨의 가야금 병창, 신영희씨의 국악한마당, 청량다회의 차 나눔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차를 마신다는 것은 우주의 내가 하나되는 성스러운 시간이 아닐수 없다”며 “대수롭지 않은 일을 다반사(茶飯事) 하듯 평범속에 비범을 마음에 담아본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청량다회> 배지선 기자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성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감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사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체조법과 은 융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풀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팍스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융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사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 과정

-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뜨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린다.
-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사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물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발을 쫓 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협단체과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성

■ 본원

- 주소: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051)803-5953 / 011-9803-4600

* 제작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성